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앞 이빨에 털이 돋았다”



〈38〉 요설(饒舌)로 그 말을 비틀다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도 알고 보면 문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립의 방장으로서 더욱 한 권 남기지 않으면 선사속에 제대로 끼어 들 수 없는 것이 오가 칠종(五家七宗)의 분위기였으니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그렇게 많은 선어록을 대량 생산시키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불립문자’를 외칠 수 있는 그 강심장들을 열거한 곳이 전등사(傳燈史)이다.

경율론 삼장에 이어 선어록을 선장(禪藏)이라고 한다. 모두를 합해서 사장(四藏)이라고도 부른다. ‘잔소리쟁이’ 고타마 선사도 열반하시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딱 찍어했으니 그 스승에 그 제자들이라고 하겠다.

2차원 세계의 문자가 3차원 세계에서는 언어로 바뀐다. 말습시라고 해서 어디 빠지겠는가. 선종사에서 제일 말 잘하는 선사는 조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나머지 도 그 못지않다. 차라리 말 못한 선사를 골라내는 편이 더 빠르겠다. 설사 반딧불을 모아서 수미산을 밝히고 표주박을 들고서 바닷물의 양을 헤아려 보겠다고 할지라도 언어문자 이외에는 법을 표현할 수단이 없느냐까 차선으로 ‘문자반야(文字般若)’라는 절묘한 중도적 표현이 등장한다.

그때도 늘 진짜와 가짜는 있기 마련이다. ‘짜짜 선사’를 골라내는 것이 선지식의 가장 큰 의무이기도 하다.

먼저 약산유엄(745-828) 선사가 석실(石室) 고사미(高沙彌)의 잔머리를 간파한 이야기다. 고사미가 약산유엄 선사에게 하직인사를 하려고 왔다.

“아디로 가는가?”
“강릉으로 제(戒) 받으러 갑니다.”
“계는 받아서 무엇을 하려는가?”
“생사를 면하고자 합니다.”
가만히 있을 유엄 선사자 아니다. 바로 거장으로 들어왔다.
“어떤 사람은 계도 받지 않고 생사를 여윈다고 하는데 너는 알고 있느냐?”
하지만 아직 이 질문을 받을만한 그릇까지는 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250계를 제정하신 것입니까?”
교과서적인 답변에 유엄 선사는 활을 하였다.
“예끼 이놈! 저 말 많은 사미(요설사미 饒舌沙彌)가 아직도 입술과 치아만 놀리고 있구나.”
선사의 질문에 안목이 열리지 않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여 그동안 흉내만 내고 있던 고사미의 살림살이가 들뜬 난 것이라고 하겠다.

육조혜능 스님 현장 운동의 일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하택신회(670-762) 선사는 ‘요설사미(饒舌沙彌 말많은 사미)’라는 말의 원조이다. 13세 때 혜능 스님과 그의 첫 대면에서 이 말을 듣게 된다.

이에 선사는 사미를 몇 대 때리고는 말했다.

“대중은 모두 나가고 요설사미(饒舌沙彌)만 남도록 하여라.”

‘요설(饒舌)’은 선가에서 ‘말재주 피우는 놈’이라는 뜻으로 자주 이용되었다. 본래 대승경전에서 ‘요설(樂說)’은 중생이 원하는 바에 맞추어 해주는 설법을 의미했다. 선종의 ‘요설(饒舌)’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써 흉내만 내는 것을 말한다.

안목 없이 선지식노릇을 하고 있다면 요설에도 심중잡구 속이 넘어가기 마련이다.

임제(7-867) 선사의 눈을 열어 준 고안대우 선사는 ‘요설노파(饒舌老嫗)’라는 극언으로 표현되어 있다.

“술대없는 말을 증언부언 늘어놓는 할망구같은 놈”이란 말이다. 임제 선사가 눈이 열려 “황벽의 불법이 너를 놓치지 않구나 하니 선배인 고안대우 선사가 “이 오줌싸개같은 어린 놈(尿淋鬼子)이 뭘 알고 그러느냐”고 하니 다시 임제가 옆구리를 세 번

언어문자 외에는 법을 표현할 수단 없으니 차선으로 ‘문자반야’라는 절묘한 표현 등장

장황하지만 〈조계대사전(曹溪大師傳)〉을 그대로 인용하겠다.

“나에게 한 법(法)이 있는데 이름(名字)도 없고, 말로 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다. 안팎도 없고, 오고 감도 없고, 색깔도 없다. 유무(有無)도 아니고 인과(因果)도 아니다.”

그리고는 대중들에게 질문을 하였다.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대중들은 서로 쳐다보지만 할 뿐 같이 대답하지 못했다. 이 때 13살 사미인 신회가 말했다.

“이것은 바로 부처의 본원(本源)입니다.”
“무엇이 본원인가?”
“본원이란 제불의 본성입니다.”
“나는 이름도 없다고 했는데 너는 어찌 불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불성은 이름이 없지만 화상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정말 이름을 말할 때는 이름이 없습니다.”

취어박은 사건에서 연유한다.

오줌싸개같은 놈이란 잡자리에서 대소변을 못 가려 이틀날 아침 키클 들러쓰고서 소금이나 얻으러 다니는 ‘똥 오줌을 못 가리는 어린 놈’이라는 의미이다. 이 말 때문에 고안대우 선사는 뒷날 ‘요설노파’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대우의 영향을 받은 임제 선사의 과격한 표현은 이미 정평이 나왔다. 그는 ‘똥’이란 말도 즐겨 썼다. 심지어 (임제록)에서 경전을 ‘똥 뉘아낸 휴지(拭不淨故紙)’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똥’이란 말도 계속 가지치기를 해나갔다.

선어록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만난 ‘똥’이란 문자는 ‘똥막대기(乾屎橛)’이다. 운문문언에게 어떤 남자가 물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원래 선문답이란 문문서답이니까 별소리를 다하지만 내가 이 공안을 듣고서 일으킨 의심은 ‘똥막대기’라는 말의 사전적



그림 · 이준석

의미였다.

어느 청명한 가을날이었다. 도반들과 산에 갔다가 갑자기 대변이 마려워 몰래 숲 속 큰나무 뒤에 가서 실례를 했다. 워낙 갑자기 생긴 사건이라 휴지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손수건이 나왔다. 바로 뉘어진 손수건마저 버려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손닿는 곳에 있는 잎사귀로 먼저 대충 닦았다. 다시 그 손수건으로 마감을 하고서 다시 호

막대기 역할을 했던 것이다.

반대로 변소는 포장된 언어로 바꾸어 놓았다. 선종에서는 변소를 동사(東司)라고 한다. 뒷간은 항상 동쪽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최척하기 때문에 항상 밝음을 의미하는 동쪽 칸에 둔 안목(淨頭)이라고 부른 것도 대단하다.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변소를 정랑(淨廊)이라고 한다. ‘반드시 깨끗

두고 있다. 대우의 ‘오줌싸개’는 임제의 ‘똥뉘아낸 휴지’로 그 영향을 미치더니, 운문의 ‘똥막대기’로 연결되었다.

양개에게는 ‘똥이 만들어지기 전의)똥통같은 놈’이라고 하였으니 오줌이나 똥이나 똥통이나 그 말이 그 말이다. 똥이 곧 법인 불이(不二)의 경지인 것이다.

그리고 몸은 ‘똥자루’나 ‘고름주머니’로 표현하여 ‘사대(四大)가 공(空)하다’는 것을 그 과격함 요설로써 표현한 것이 선어록 도처에 널려있다.

그러나 초조(初祖)인 달마 대사는 반대로 침묵 그 자체였다. 그는 박해로 인하여 앞니가 부러진 까닭에 ‘결치도사(缺齒道士)’ 혹은 ‘결치노호(缺齒老胡)’라고 불렸다.

치아가 빠져 보기싫어 입술을 항상 꼭 다물고 있었던 모양이다. 얼굴모습도 서역인이라 별로인데 앞니까지 없었으니 놀랄까 봐 말을 하려야 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양치질 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삼매에 빠져 늘 벽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치아가 더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었다. 판치생모(飯齒生毛)는 이빨에 곰팡이가 필 지경이라는 말이다.

각설하고 설사 ‘달마의 침묵’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놓친다면 구피(口皮)선사 조주(趙州)로서 자각이 없는 것이다. 침묵의 ‘불립문자’를 설(舌)로써 ‘문자반야’로 전환시키는 순간이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앞 이빨에 털이 돋았다(飯齒生毛).”

말재주 피우는 놈·똥통같은 놈·똥자루 등 과격한 언어로 안목 열어주고 불법 설파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다. 절로 돌아와서 바로 세탁을 했다.

며칠 후 다시 그 코스로 산행을 했다. 갑자기 그 똥이 금금해서 그 자리를 다시 찾았다. 날씨가 건조했던 탓인지 그야말로 ‘똥막대기’가 되어 있었다. 이게 운문 선사가 말한 그 똥막대기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휴지가 없던 시절인 당송시대에는 변소에서 휴지 대신 나무막대기를 사용했다. 대변을 마친 후 똥막대기를 이용하여 대충 털어내고서 뒷물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똥막대기로 제대로 털어내지 않으면 뒷물이 많이 든다. 그리고 사용한 똥막대기는 곁에 있는 다른 통에다가 옮겨서 따로 보관했다.

변소 청소 담당자는 마른 똥막대기에서 똥을 털어내고 씻어 말려 다시 새로운 통에 담아두고서 다음 사람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일을 당한 순간 사용했던 그 손수건이 똥

하게 해야 할 집’이라는 말이다.

요즘 고속도로 공중화장실은 거의 호텔급 수준이다. 화장실로 영업의 승부처로 삼아야 할 만큼 사람들이 청결함을 추구하는 시절인지라 깨끗함마저 경쟁적으로 상품화시켰다. 어느 휴게소의 화장실은 강이 내려다 보이고 대나무가 창가에 심어져 있는 그 ‘정랑’ 때문에 ‘참으면서까지’ 자주 이용하게 된다. 동사(東司)의 밝음까지 유리도 다 해결해 놓았다.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변소를 밝고 깨끗한 집인 ‘정랑’이라고 부르는 것도 선종의 요설이다.

마삼근(麻三斤)의 주인공인 동산양개(807-869) 선사도 운문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건달로 제방을 설령설령 다닌 탓에 운문 스님에게 ‘식대자’ 소리를 들었다. 식대자(食袋子)는 ‘똥을 눌러넣는 자루’ 즉 그러니까 ‘똥통같은 놈’이라는 말이다. ‘똥통같은 놈’이란 똥의 원인인 ‘똥만 축낸다는’ 의미에 초점을



오디오불경대전집 佛經大全集 탄생

경전을 듣는 사람이면 어리석음에서 눈뜨고 무명을 깨뜨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무소유보살경)



CD 23장



불경대전집 수록내용

천수경 경어연불, 아미타경, 화엄경 약한계, 만아십경, 교왕경, 목탁성, 범성계, 무상계, 관음경전, 금강경, 반회십륙, 천수경, 화엄경 약한계, 관세음보살보문품경, 나옹 화상 발원문, 천지발원인수경, 선왕경, 조왕경, 부두주, 범화경 약한계, 신심명, 보현행원품, 범회십륙, 계왕경, 약사여래본원경, 관세음보살 사십이수주, 석가모니불 정근, 약사여래불 정근, 관세음보살 정근, 지장보살 정근, 화엄경 정근, 마하반야바라밀 경, 우리말 천수경, 우리말 아미타경, 우리말 반야심경, 우리말 관세음보살 보문품경, 우리말 나옹화상 발원문, 이산 해연선사 발원문, 우리말 범성계, 우리말 무상계, 경어 스님 참선곡, 부보은중경, 우리말 천지발원인수경, 나옹스님 토굴경, 회심곡(불기조), 우리말 보현행원품, 우리말 자장경, 우리말 금강경, 현해여 부보은 중경, 경어의 말씀(맑은 미역을 향하여), 명상의 말씀(2달, 진리를 말하려고), 명상의 말씀(옛 성현을 따라) 명상의 말씀(행복의 문을 열자), 회심곡(스맛조), 달들이

- ◆ 수록시간 : 25시간 07분
- ◆ MP3용 : CD1장 + 고급우단 케이스 가격 = 25,000원
- ◆ 일반CD용 : CD23장+휴대용 CD지켓 가격 = 60,000원

부처님의 말씀은 수많은 경전으로 엮여져 무량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세계를 다시 이 작은 CD로 감히 엮어 선을 보이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충고와 지도를 바라며 부디 이 「불경대전집」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은행계좌 : 제일은행 186-20-017075 예금주 : 홍선희

티비에스시(TBSC) www.tbsc.co.kr T.3274-1198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16-58 용산전자 0/1116호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호국불교효혜종

석문사

주지 혜전

사부대중 일동

참된 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지난 10월 9일 여법히 봉행된 “제 2회 석문사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자리 103-2번지
전화 043)264-3008. 011-9607-2199